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구의회 무시하는 구비 초과 집행에 반대”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구본승 의원은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10일 '서울시비와 강북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사업비'에 대한 지난 1차 본회의 발언에 따른 답변내용을 두고 재차 발언을 펼쳤다.

구 의원은 “등재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구의회에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는 지난 발언에 대해 ‘당초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기록물 목록화 등 기초작업의 결과만을 가지고 공모할 생각이었으나 금번 문화재청 공모에 동학관련 기록물 등이 신청 될 것으로 파악됐고 경합이 벌어질 경우 우선 등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국내외 학술세미나, 국내외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조기지원을 요청해왔던 것’이라는 답변을 밝히고 “이것이 중복편성된 시·구비 2억 4천만원을 전액 지원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심의시 구의회에 보고한 ‘지방자



치단체의 분담금은 1억 2천만원이다’는 사실을 명백히 뒤집는 것”이라며 “구비 6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출 근거가 부족한 예산낭비이고 특혜시비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4월, 등재추진위 법인 설립 전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수립에 있어서 강북구청이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비 1억 2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 등재추진위는 구비로만 사업을 기획했을 것이어서 “자신들의 노력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강북구에게는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을 재차 밝히면서 구 의원은 “작년 추경, 본예산에서 이 건을 다룬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고받은 명백한 사실을 뒤집으며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구비 6천만원 초과 집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일보 4면

중복편성된 4·19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예산낭비와 특혜시비 소지

구 본 승 의원
(무소속,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비와 강북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구의회에 보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었다.

그에 대해 ‘당초 등재추진위원회에서는 2015년 9월에 실시하는 문화재청 공모에 우선 등재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상반기에 기록물 목록화 등 기초작업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화재청 공모에 응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금번 문화재청 공모에 동학관련 기록물 등이 신청될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합이 벌어질 경우, 우선 등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국내외 학술세미나, 국내외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위해 당초보다 증액된 시·구비 2억4천만 원을 조기지원 요청한다는 의견을 보내왔



▲ 구본승 의원.

다’ 라고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걱정을 넘어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재차 발언을 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구 의원은 “상황변동에 따라 등재추진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 만 이것이 중복 편성된 시·구비 2억 4천만 원을 전액 지원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며 ‘첫째, 작년 예산심의 시 구의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1억2천만 원이다’ 는 사실을 명백히 뒤집는 것으로 구비 6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출 근거가 부족한 예산낭비로 특혜시비에 빠질 수 있다.

둘째, 2014년 4월, 등재추진위원회 법인 설

립 후에도 강북구청에서 먼저 연락하여 등재추진위원회와 만나게 되었다. 이는 법인설립 전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수립에 있어서 강북구청이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하기에 예산확보의 주책임은 등재추진위원회이고 강북구는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만약에 시비 1억 2천만 원이 추가 편성되지 않았다면 등재추진위원회는 구비로만 사업을 기획했을 것이다. 현재 등재추진위원회는 그때그때 다르게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강북구에게는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구 의원은 “작년 추경, 본예산에서 이 건을 다룬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고받은 명백한 사실을 뒤집으며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구비 6천만 원 초과 집행에 반대한다” 며, 이에 대해 박경수 강북구청장의 답변을 바란다”고 발언을 하였다.

이에 하철승 부구청장은 “지난번 답변서가 혼선을 드린듯하다” 며, “4·19 등재는 2017년 8월에 유네스코 등재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에는 문화재 선정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고 밝히며 “4·19는 물론 강북구 전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신중히 행하고 있다” 고 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구본승 의원...구비 6천만원 초과 집행에 반대 주장



지난 10일 제18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 의원이 지난주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 구청답변이 문제 있다며 5분 발언에 나섰다.

구 의원은 민주당 이 자리에서 '서울시비와 강북구비로 중복 편성된 4.19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구의회에 보고한 사실에 근거해 집행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

고 답변을 받아보았지만 답변내용이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재차 발언을 하게 되었다며 '상황 변동에 따라 등재추진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복편성된 시, 구비 2억 4천만원을 전액 지원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승 의원은 그 이유로 작년 예산심의시 구의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은 1억2천만원이다'는 사실을 명백히 뒤집는 것으로 구비 6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한다면 이는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출 근거가 부족한 예산낭비다. 특히 시비에 빠질 수 있다. 또 2014년 4월, 등재추진위 법인 설립 후에도 강북구청에서 먼

저 연락하여 등재추진위와 만난 것은 법인 설립 전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계획수립에 있어서 강북구청이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이기에 예산확보의 주책임은 등재추진위이고 강북구는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등재추진위는 그때 그때 다르게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강북구에게는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본승 의원은 "작년 추경, 본예산에서 이건을 다룬 상임위원장으로 보고받은 명백한 사실을 뒤집으며 강북구의회를 무시하는 구비 6천만원 초과 집행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